

EU-Korea FTA Impact Assessment Study

Final Report Phase Three

Framework Contract Commission 2007 Lot n°5 – project N°2007/139648

<번역본>

EU-Korea FTA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최종 보고서 요약

EU-Korea FTA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최종 보고서 요약

Framework Contract Commission 2007 Lot n°5 – project N°2007/139648

2008 년 3 월

Website: www.eu-korea-sia.org

e-mail: mail@eu-korea-sia.org

본 프로젝트는 EU 통상총국(DG Trade)의 의뢰와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는 독자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내의 분석과 결론은 컨설턴트의 의견에 따른 것이고 유럽위원회의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IBM 벨기에

공동연구기관 : DMI, Ticon, TAC



1. 요약

1.1. 개요

본 보고서는 연구 지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방법론에 의거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¹과 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층 분석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IA 방법론에서는 인과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EU-Korea FTA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구통계적 추이, 기술적 변화 그리고 EU와 한국 공히 지역과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투자, 이주, 환경적 연관성에 기인해 양 경제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는 구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했습니다.

- EU와 한국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포괄적 분석
- 사회 및 환경적 배경의 분석
- CGE 모델과 기타 수량적 방법을 이용한 FTA의 수량적 경제전반 영향
- 산업과 수평적 이슈의 심사
- 경제전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특정 산업과 수평적 이슈의 심층연구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부정적인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일 수 있는 害縮利增 대책(flanking and enhancing measures)을 위한 정책 권고와 제안을 제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FTA가 진행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합니다.

1. **포괄적 (comprehensive) FTA:** 식품외 관세의 일체 폐지, 대부분의 식품에 대한 관세 폐지 (소수 민감한 상품은 제외), 서비스의 포괄적 자유화. 이런 유형의 FTA는 WTO 규칙과 일치할 것입니다.
2. **심화(deep) FTA:** 포괄적 FTA 및 다수의 국제적(beyond the border) 이슈를 집중적으로 포함하는 FTA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 FTA 영향의 효과, 사회/환경적 영향, 이해 당사자 및 민간단체 대표로부터 청취한 보완적 의견을 기준으로 모든 산업을 심사한 후 다음 네 가지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 자동차
- 농업 (및 하부 부문)
- 금융서비스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우리는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평적 이슈를 EU 또는 한국에 있어서의 중요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분석한 후 무역흐름에의 예상효과, 무역보호의 수준, 사회/환경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국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평적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 원산지 규정
- 기술적 규정, 기준, 위생 및 검역(Phytosanitary) 대책

¹ 유럽연합이란 유럽위원회와 리스본 협정의 인준 결과에 따른 회원국을 의미함.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2007년 이후 현재 회원국인 27개국을 지칭하고 있음. 역사적 자료와 분석적 비교에서는 2004년 이후 2007년 이전까지의 25개 회원국을 지칭함. EU15는 2004년 이전 회원국을 지칭함. 신회원국(NMS)은 2004년 이후 가입한 12개 회원국을 지칭함.

- 지적재산권
- 투자

SIA 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해 EU-Korea FTA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질적 및 양적 모델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SIA 는 최신 GTAP 모델과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CGE 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발될 잠재적 투자흐름과 관련된 일부 역동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하위산업에서 투자효과와 비관세 장벽의 분석 및 산업구조의 잠재적인 역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분리된 부분평형분석을 실시했습니다.

EU 와 한국간 FTA 협정의 포괄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체적인 이득이 크지만 전체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는 크기가 않고 EU 의 경우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GE 모델, 특히 GTAP 모델은 지역(region)에 대한 FTA 의 포괄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는 있지만 분석도구로서의 일부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라든지 직접투자흐름의 증대, 경쟁친화적 효과, 이노베이션 유발효과 등과 같이 FTA 가 가져올 일부 잠재적 효과는 이러한 모델에서는 쉽게 포착되지 않습니다.

SIA 는 GTAP 모델을 이용한 모델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효과들을 분석하기 위해 투자흐름 증가의 잠재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경제전반적 정량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beyond the border** 이슈들을 세분화하여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일부 산업이나 업종을 선정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했습니다.

SIA 는 한국과 EU 의 기업, 산업협회, 연구소, 노동단체, 민간 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국과 EU 에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SIA 멤버들이 대표자들을 만나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이메일을 통해 SIA 에 자세한 의견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협의와 더불어 EU 와 한국의 이해 당사자들이 보내온 의견으로 분석 내용이 풍부해지고 결론과 권고사항에 많은 정보가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1.2.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

우리는 CGE 모델링과 함께 경제전반적 모델링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CGE 연구 에서 EU-Korea FTA 의 결과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와 금융서비스 등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무역효과가 큰 이유는 첫째 CGE 모델에서는 주된 통합채널이 무역을 통해서라는 것이고 둘째로 CGE 모델에서 사용된 무역의 탄력성과 모델구조는 산업간 (inter-industry) 조정의 중요성은 과장하고 산업내(intra-industry) 반응과 경제적 통합에 대한 역동적 조정은 과소평가 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내 무역 이론은 불변비용, 동일기술, 대체상품으로 산업간 무역을 강조하는 **Heckscher-Ohlin** 이나 **Vinerian** 종류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Grubel and Lloyd (1975)**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Grubel and Lloyd** 는 1980 년대 유럽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무역과 산업의 조정에 대한 경험적 증거의 분석을 기초로, EC 내에서 차별적(differentiated) 상품의 양방향 무역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산업내 전문화의 증가로 이어지고 동시에 생산에서 산업간 전환이 앞서 관찰된 것보다 덜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전체 EC 시장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브랜드의 특정 상품군 시장부문이나 틈새에서의 전문화로 경쟁했습니다.

모델에서는 불변비용과 동일기술을 추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프레임워크에서는 EU 와 한국간의 잔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에 따른 잠재적 이득이 근소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EU 와 한국간에 포괄적이고 비교적 심화된 FTA 를 실시함에 따라 잠재적 규모효과,

상품 전문화 효과, 경쟁친화적 가격효과가 있으며 직접투자 유발과 이노베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Base Case”의 분석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분석에서는 관련된 사회, 환경적 영향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가 분석에 있어서 기본가정 (base case)을 적절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EU-Korea FTA의 잠재적 영향이 무엇이나고 묻는 반사실적 질문에 대답하려고 한다면 그런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8 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하고 그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의 Korea-US FTA는 협상은 되었지만 아직 실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와 상호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칠레, 멕시코 등과 상호자유무역협정, 터키와 관세동맹, 크로아티아와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U는 최근 ACP 국가들과 경제파트너십협정을 체결하고 지중해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적 제휴를 심화하고 있으며 아세안,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인도, 남미공동시장과 FTA를 협상 중에 있거나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Korea FTA의 잠재적 영향은 만일 상호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양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와의 상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양측 모두 다른 파트너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EU-Korea 간 상호 무역 및 투자관계는 축소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분석에서는 또 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정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기본가정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EU-Korea FTA의 경제적 분석에 있어서 두 개의 포괄적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EU-Korea FTA의 경제전반적 효과는 양 파트너가 이미 아주 개방적이거나 비교적 개방적인 경제권인데다가 세계경제와 비교적 많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척도나 방법론을 이용하든 간에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항일지도 모르지만 상호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잠재적 파트너와 세계경제와의 통합은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² 우리는 경제적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보완적 방법론을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시되는 대안 시나리오라는 의미에서 기본가정의 성격규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국의 선진국 경제로서의 출현과 EU 및 한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산업의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첩 및 보완성의 정도는 산업내 전문화, 규모효과, 경쟁친화적 효과, 투자유발, 이노베이션 효과에 대한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 CGE 또는 수정 CGE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전반적인 양적 경제적 영향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² 일부 논평자는 한국의 공식적인 무역장벽은 비교적 근소하지만 경제의 전반적인 개방 정도는 생각한 것보다 낮다고 지적함. 한국경제의 실제적인 개방 정도가 낮은 것이 지리적 중력요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재벌의 지속적인 존재를 반영하는 시장구조 또는 상품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등에 어느 정도까지 기인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 이러한 설명요인의 상대적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규제환경을 개선하거나 보다 더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정책변화 또는 보다 더 전반적으로 경쟁가능성의 제반 측면을 고양할 수 있는 대책이 앞으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임.

표 1.1: GDP 에 대한 FTA 효과 (기본가정에서의 %)

연구	모델	한국에 미치는 영향	EU25 에 미치는 영향
Pukyong (2006)	GTAP Armington / Dynamic	2.3%	-
KIEP (2005)	GTAP Armington	2.0%	+0%
Copenhagen Economics (2007)	GTAP with Imperfect Competition	2.4%	+0%
SIA GTAP (2007)	GTAP Armington	0.4%	+0%
SIA GTAP (2007)	GTAP Adjusted Elasticities	0.7%	+0%
SIA Investment Model (2007)	Econometric Panel Estimation	2.1%	-

보다 더 역동적인 효과는 상기 표의 마지막 라인에 기재한 것과 같이 SIA 가 실시한 한국에 있어서의 잠재적 투자효과의 분석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 EU-Korea FTA 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의 평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 면에서 보면 FTA 실시에 따른 결과로 EU 나 한국 어느 쪽에서든 생산과 고용에서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대한 산업간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U-Korean FTA 에 따른 영향과 세계화(globalization) 및 기술적 변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EU 쪽에서 비숙련 근로자에서 숙련 근로자로의 소폭적인 수요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모델기반의 연구 중 일부에서는 EU-Korean FTA 로 인해 한국의 일부 산업에서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는 경제적 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로 인한 중국이나 인도, 아세안, 기타 신흥 경제국의 한국에 대한 경쟁적 도전에 대한 과도하게 정적인 어프로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보면 EU 와 한국간에 (같은 EU 회원국간에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노동수준과 양호한 근로 여건을 지원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심각한 이슈가 없습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과 관련한 ILO 협약 중 일부에 가맹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최근의 ILO 협약 일부에는 가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 협약에 의거한 기준은 확실하고 노동문제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위한 비교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EU 회원국에서 일부 사회경제적 그룹간에 구조적 실업을 축소해야 하는 난관이 있듯이 한국은 여성의 폭넓은 경제 참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별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리가 자세하게 실시한 분석에서는 특정 사회경제적 그룹 또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큰 변동을 초래할 중대한 산업변화나 근로자의 이동은 없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EU 와 한국간 자유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우 쇠고기 생산이나 곡물 등의 부문에서 한미 FTA 실시로 예상되는 영향과 비교될 정도로 주요 농업 생산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U 는 FTA 가 실시되면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일부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와인이나 주류 등 일부 농산물에 있어서는 한국 쪽에서는 조정효과에 국한되고, 주된 효과는 EU 의

수출업자가 한국시장에 보다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시장 점유비를 지키거나 되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이 對 EU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EU 가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볼 때 다수의 산업적 관심사가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면 EU 시장 자동차 생산자의 전반적인 고용수준에 미치는 점진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세인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EU-Korea FTA 로 인한 자동차 부문에서의 고용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EU-Korea FTA 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근소할 것입니다. 10 년간의 기간에 걸쳐 EU 나 한국 양측에 미치는 주된 누적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의 상승이라는 잠재적 혜택을 수반하는 근소한 생산성 향상이 될 것입니다. 실질임금의 상승은 인구통계적으로 역행적 추이라는 맥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러한 잠재적 임금상승은 아무리 근소하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U 와 한국의 1 인당 소득수준과 소득의 분포구조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1 인당 소득이 동일하고 소득분포의 패턴이 양측에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EU 회원국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비교적 중간에 가깝습니다.

소득수준 및 구조 또는 소득분포의 패턴에 있어서 이러한 상대적 일치의 결과로 상대적 가격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관련한 이슈는 비교적 적거나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다 더 개선되고 효과적인 보호는 한국사회 내의 특정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국경제에서 순자산이 추가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불리한 그룹을 위한 보상 잠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흡수될 것입니다. 반면에 EU 의 對韓 가공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면 소득의 큰 몫을 식품 및 음료 소비에 분배하는 한국의 저소득 도시 소비자에게 약간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기에서 장기적으로 EU 와 한국 공히 인구가 변동이 없이 고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노동력의 참가 그리고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생학습 촉진, 고령 근로자의 고용지속 장려, 기술개발과 재훈련 확보는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한국은 청년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장기적 청년 실업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과적인 기회 보장과 고령 근로자의 기술 증진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 참가 권장이 주요 난제입니다

EU-Korea FTA 로 인해性に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의 교육 및 취업 기회 개선은 고령화 사회라는 장기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 서비스 같은 일부 산업에서 여성 고용이 더 많은 업종에서의 고용증가와 FDI 증가로 인해性に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 영향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근접함에 따라 EU 와 한국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확대로 인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 이용된다든지 또는 공해와 기타 규제되고 있지 않은 부정적 환경요인이 확대되리라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EU-Korea FTA 의 실시로 인한 중대한 환경적 부작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SIA 가 환경측면에서 확인한 유일하게 중대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난제'(mitigation challenge)는 경제성장의 완만한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과 무역흐름의 증가로 인해 EU 와 한국 공히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운송에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과 정책에 있어서의 난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난제는 FTA 로 인한 특정한 영향보다는 중요성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큰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특히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술 향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혜택은 클린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이용 및 보급 확대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환경 개선과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클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와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이익이 될 것입니다.

EU 와 한국 공히 발전과 운송을 화석연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이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라는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차대합니다.

EU 는 새롭게 통합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까지 EU 의 온실가스 배출을 20%,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30% 축소
-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
-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
- 2020년까지 운송용 바이오연료 비율을 10%로 확대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나 에너지 정책의 개혁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EU 와 한국은 대체적으로 발리회의 이후 UNFCCC 의 향후 발전을 공통 관심사로 하며 다자간 환경협력에 대한 협력증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3. 권고와 정책제안

EU-Korea TSIA 에 대한 연구 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협상결과를 최적화하고 EU27 과 한국에 있어서 害縮대책(flanking measures) 발견을 통해 부정적 영향은 방지 또는 축소하고 긍정적 영향은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제안(무역과 무역외 공히)을 제출해야 한다.”

SIA 는 EU-Korea FTA 로 인해 예상되는 전반적인 잠재적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총체적인 EU 와 한국 경제권이 혜택을 받겠지만 일부 개인과 이익단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겪을 수 있습니다. SIA 는 분석의 초점을 위험관리를 개선하고 예상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잠재적 악영향을 식별해 내는 데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SIA 의 3 대 측면 모두에서 FTA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식별해 낸 다음 분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환경적 효과는 FTA 의 출발시점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고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요인이 됩니다. 본 분석에서는 FTA 결과를 害縮(flanking)함으로써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SIA 체계를 감안해 최선의 정책집합은 어떤 것인지 또는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FTA 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라는 기초가정과 관련하여 개선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은 어떤 종류인지부터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EU-Korea FTA 협상을 통해 또는 양측 모두의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보완적 정책 반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완화 및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책을 검토합니다.

EU 와 한국은 공히 FTA 를 협상하고 그 후 害縮利増 대책을 포함, FTA 를 실시함에 있어서 FTA 및 그에 대한 害縮利増 대책이 향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압력과 지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분배효과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가 실시되는 광범위한 경제, 사회, 환경적 맥락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FTA 관련 정책제안

“협상에서 EU 의 입장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라”는 연구 지시서에 의거한 SIA 의 FTA 협상을 위한 정책 관찰과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벽의 단계적 축소

한 가지 분명한 권고는 큰 폭의 경제적 조정이나 사회,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변화는 노동시장이 인건비 하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보완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보다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는 EU 와 한국 양측의 잠재적 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서서히 단계적이어야 한다.
2. 환경 상품과 서비스, 와인이나 주류 등의 농산물, 의약품 등에 대한 무역장벽 축소는 보다 더 빠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자동차나 섬유, 의류같이 외부 MFN 관세가 높고 관세체계의 범위가 넓은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 3 개 산업에 있어서 만이라도 원산지 규정의 높은 내용요건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하면 FTA 에 의거 특혜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에 들어가는 수입부품에 관세환급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될 것이다.
2. 한국경제는 위치적인 면과 EU 외 국가와의 무역이 다대하다는 점에서 수입부품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MFN 장벽이 낮고 제 3 국의 관세체계에서 분포도가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에 일부 융통성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 상품, 특히 WTO 국제기술협약(International Technology Agreement)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는 상품에 대한 내용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
3. 나아가 FTA 내의 산업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EU 와 한국간 원산지규정 목적으로 내용물의 누적이 있어야 한다.

위생 및 검역 대책, 기술적 규정과 기준

상품의 라벨표시에 대한 규정, 위생 및 검역 대책, 기술적 규정과 기준은 EU 와 한국의 공급업자에게 공히 시장접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들 대책이 합법적인 목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경우에 있어서 그 실시가 무역에 불균형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SPS 대책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WTO 규칙에 기초한 기술적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SPS 를 위한 국제기준의 활용과 기술적 의무규정은 자동차, 식품, 전자, 화장품 등의 산업에 중요합니다.

7 가지 보완적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한 관련성이 큰 국제기준이 SPS 대책과 기술적 의무규정의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
2. 기술적 규정과 기준의 개발과 선포는 실시예 앞서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의 규제관행을 포함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그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3. SPS 대책에 의거 공인 공급업자 명단예의 등록절차에 대한 공통된 어프로치 개발과 지역화/구역지정(regionalization/zoning) 의 인정과 같은 SPS 일부 조항의 실시예 대한 공통된 이해 개발.
4.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 등 FTA 내 SPS 이슈예 대한 상호 어프로치를 제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예의 의존도 유지되어야 한다.

5. 기술적 규정과 기준에 있어서 준수평가에 대한 상호인정과 공인절차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6.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 등 FTA 내 기술적 규정과 기준에 대한 상호 어프로치를 제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7. 동물복지와 환경마크 등과 같은 분야의 기준 개발을 위한 협력적 어프로치가 전개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IPR).

EU 의 칠레 등과 같은 과거 상호 FTA 중 일부에서는 WTO TRIPS 협약에 의거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공통적인 다자간 약속을 단순히 삽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약산업, 농산물 생산자, 고급품 제조업자, 영상음향 산업 등 유럽 쪽의 다수 산업이 EU-Korea FTA 에서 지적 재산권의 실질적인 보호에 개선을 제의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수준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투자환경 개선과 이노베이션 및 환경기술을 비롯한 기술보급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EU-한국은 실질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적 재산권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지리적 표시의 명확화와 연장을 모색해야 한다.
2. 영상음향과 디지털 재산을 포함하는 저작권 보호가 정교해져야 한다.
3. 특허신청에 대한 규제적 자료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영상음향과 복제품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의 시행강화가 특히 시급하다.
5. 권리 소유자에 효과적인 상환청구가 허용되는 시행절차가 필요하다.

투자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 촉진과 기술보급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FTA 는 EU 와 한국간에 양방향 FDI 를 권장합니다. 한국의 기업에 대한 EU 투자자 또는 EU 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지분 참여도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는 축소되어야 하고 보다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 등에 있어서 포지티브리스트보다는 제한된 활동을 정의하는 네거티브리스트가 활용되어야 한다.
2. 규제정책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주요 목표이고 최선의 규제관행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에는 환경규제나 근로기준 완화를 투자 인센티브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삽입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과 EU 간에 발전수준과 경제, 사회, 환경 이슈의 공통성 정도가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1. 핵심 근로기준과 ILO 협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양호한 근로 어젠다에 대한 협력 합의.
2. 다자간 환경협약과 국제근로기준에 대한 공동약속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3. 또한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 투자와 관련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환경기준이나 근로기준의 완화가 투자 인센티브나 무역왜곡 조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다자간 환경문제의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보완적 노력.

5. EU 및 한국에서 사회 또는 환경 사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슈나 관심사를 검토하고 환경,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며 사회, 환경적 이슈와 관련한 대책의 잠재적인 무역 또는 투자 효과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거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일단의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지속가능성개발 위원회나 포럼의 개발.

1.5. 害縮대책(FLANKING MEASURES)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야 할 난제’(mitigation challenge)로 확인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요 포커스는 FTA의 실시를 보완하기 위한 害縮利增 대책에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害縮利增 정책적 대책은 투자흐름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 유럽과 한국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도우며 네트워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 투자기후(Investment Climate)의 개선과 투자 촉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에는 거시경제적 안전 촉진과 기업비용의 축소가 포함됩니다. 검토 가능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 창업 및 면허 취득 비용 축소
 - 중소기업에 위한 enabling environment 조성
 - 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예상이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2. 최선의 관행을 교환하고 생산과 국제거래를 촉진하는 비즈니스 링크를 개발하기 위해 EU와 한국간에 특히 중소기업에 위한 기업 대 기업(B to B) 접촉을 권장
 3. 수평적 경쟁정책 등의 규제정책에서와 금융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신중한 규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별 규제 프레임워크에서의 협력 제고
 4.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을 비롯한 EU 전문가의 한국 장기배치와 한국 전문가의 장기 EU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권장
 5. 리서치와 개발에서의 협력과 연구원 교환을 권장

사회적

FTA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서 부정적인 것은 완화하고 긍정적인 것은 제고하기 위한 주요 害縮利增 대책은 고용개선, 핵심 근로기준, 양호한 근로원칙, 고용참가 증진, 성의 평등 촉진과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정책의 설계와 실시에 사회 파트너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촉진. FTA는 건강과 안전 기준 면에서 고용과 근로조건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害縮利增 정책을 통해 더욱 더 제고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원천으로서 창업가 정신의 함양
- EU 신회원국의 경험에서도 보면 이 절차의 개별 단계에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 근로자의 노동력 진입을 권장 및 촉진. 평생학습 촉진, 노동력 참가를 권장,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재편성 촉진.

2. EU 교육제도와와의 협력 증진 및 교육교류 촉진, 창업가 정신 함양과 여러 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전문훈련과 교육(고등교육, 직업전문학교, 기업경영 등에 창업가 정신 커리큘럼 추가)의 비중 확대.

3. 여성과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기회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융통성 있는 근무환경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근로시장 대책.

환경적

SIA 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에너지 사용의 증가 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는 EU-Korea FTA 의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SIA 는 환경규제 및 정책 그리고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급속한 자유화의 증대로 인한 잠재적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³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며 CO2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건설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EU 와 한국은 세계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의 다음 단계를 개발하기 위한 “발리 로드맵”에 따른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후 제고 및 클린 테크놀로지의 혁신 지원

1.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투자기후의 개선, 지적 재산권 보호는 모두 클린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보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정책과 규제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제절차는 민간부문이 적절한 시장신호와 인센티브로서 클린 테크놀로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지원

에너지 효율 증대를 우선순위로 삼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강화합니다.

1. 에너지 효율성과 이노베이션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도록 에너지 가격이 경제적 비용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도록 한다
2. EU 와 한국간에 기준과 기술적 규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기준과 에너지 효율 척도가 운송장비나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최선의 국제관행에 부합하도록 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에 협력
4. 재생 에너지에 대한 R&D 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관민 파트너십에 대한 공공지원 증대를 검토.
5. 거래가능한 배출권 확인서나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체제 등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창출을 촉진

다자간 환경 도전에서의 협력 증대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이나 발리 로드맵을 포함한 국제적 환경협약 및 국제적 환경책임에 대한 공동의 어프로치 개발.
2.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증대하기 위한 상호 및 다자간 협력을 보다 더 전반적으로 강화.

결론

EU-Korea FTA 의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은 크지가 않습니다. 이는 보완적 방법론을 이용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SIA 는 경제적 조정이라는 문제가 크거나 사회적 또는

³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20 20 by 2020: Europe's climate change opportunity, COM(2008) 13 final, COM(2008) 16 final, COM(2008) 17 final, COM(2008) 18 final, COM(2008) 19 final, and Moving Forward Together on Energy Efficiency COM(2008) 11 final, Brussels, 23.1.2008

환경적 영향이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이나 하위 산업을 식별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협정은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조정 문제가 한국이나 EU 공히 가장 민감한 산업에서조차 증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양측이 계속해서 세계경제와 통합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EU-Korea FTA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상호 무역 및 투자 관계는 다른 파트너와의 특혜조치에 의해 약화될 것입니다.

EU와 한국간에 발전수준이 근접하고 소득배분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증대한 사회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무역, 생산, 투자의 확대에 의한 불리한 환경적 영향은 양측에 적절한 환경규제 및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측은 환경보호 그리고 특히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 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U-Korea FTA의 가장 증대한 영향은 다수 산업에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생산성과 혁신 효과는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해 있는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고 세계적으로 공통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에 대해

유럽연합과 대한민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07년 5월 6일 서울에서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무역협상이 미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U-Korea FTA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투자 측면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EU와 한국에 미칠 지속가능성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들에서는 FTA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검토할 것입니다. 연구들에서는 협상 결과를 최적화하고 EU27과 한국에서 害縮利增 대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방지 또는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안(무역 및 무역외 공히)을 하게 될 것입니다. SIA는 이해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구할 것이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가 지속가능성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EU와 한국 대표단간의 논의와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IBM Business Consulting (Belgium)이 유럽 쪽에서는 DMI, TAC, Ticon과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인하대학교 FTA 연구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U-Korea F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위해 이루어진 모든 연구는 의견과 검토를 위해 초안 형태로 배포됩니다.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mail@eu-korea-sia.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팀 소개

Murray G. Smith - 팀 리더. 그는 무역과 발전 그리고 통합 이슈의 분석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EU의 확대가 EU-인도 무역 및 투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 다수의 대규모 다분야 연구에 팀리더를 맡아 활동했습니다. 그는 주요 평가들의 팀리더를 맡아 무역발전 및 무역관련 지원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빈곤과 性的의 영향 등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도입했습니다.

Dr. Inkyo Cheong - 한국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는 인하대 FTA 연구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한국의 FTA 정책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인도 FTA 등 한국의 주요 FTA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식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FTA 정책,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통합 등의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Dr. Thiery Apoteker –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 분석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 관리들을 상대로 무역지원의 대세화 교육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Denise Colonna D'Istria – 무역과 발전 이슈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환경, 사회, 성에 대한 영향 분석 등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Joseph Rocher – EU 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국제거래 분야 전문가입니다.

Alan Fitzgibbon – 전 아일랜드 수출무역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는 정책개발의 무역 및 산업적 영향 분석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사회, 지역사회 영향의 분석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H.S. Lee –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FTA 의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많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ylvain Barthélemy – 지난 10 년간 "과도기 경제"와 아시아 국가, 무역 모델링, 재정 모델링, 국가 모니터링, 위험분석 연구 등 무역과 FDI 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Isabel Legrand – 산업 및 정량분석을 전공하는 응용 경제학자입니다.

Jungran Cho – 인하대학교 FTA 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FTA 이론 및 동아시아 기업부문의 생산네트워크가 FTA의 확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